

포항시, 블루밸리 산단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

블루밸리 산단 분양률 약 60% 포스코퓨처엠 등 40여개사 입주
그레핀스퀘어, 올해 10월 준공
미래 신성장산업 견인 기대



블루밸리국가산단 조감도.

포항시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력 산업의 위축 속에서도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전략 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AI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미래 100년을 내다 보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지난 2009년 자동차·선박·기계 등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목표로 조성됐지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포항시는 이차전지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과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그 결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핵심기업이 잇따라 입주했고,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3년 7월 에코프로는 블루밸리산단 내 약 21만 평 부지에 5년간 2조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양극재 밸류체인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며, 1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블루밸리산단 분양률은 약 60% 수준으로, 일부 대규모 투자 철회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포항시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40여 개 기업의 입주를 이끌어냈고, 이들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2조4000억원, 예상 고용 인원은 2600명에 달한다. 향후 MOU를 체결한 기업들까지 포함할 경우, 누적 투자 규모는 5조1,000억원, 고용 인원은 3300명까지 확

대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10월 준공을 앞둔 그레핀스퀘어는 460억 원을 투자해 그레핀 필름과 모듈을 생산하며, 국내 최초 그레핀 대량 합성 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그레핀 밸리’ 조성을 통해 포항의 미래 신성장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약 28만㎡ 부지에 1918억원을 투입해 ▲기업 집적화 ▲부품소재 성능평가 ▲연료전지 실증 코어코어 구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여 개 수소기업 유치와 1만명 이상 고용, 800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밸리산단 입주 기업에는 R&D 및 인력 양성 지원은 물론, 법인세와 소득세 5년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김해시가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에 나선다. 이번 체육관은 부원동 217-11번지 일원에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연면적 2942㎡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육관 내부에는 5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비롯해 다목적 강당, 헬스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릉군-한전 안정적 전력 수요관리 협력

울릉군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5일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과 군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는 ‘수요관리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며 울릉군청과 진행 경과를 공유 ▲하계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연락체계 구축 ▲안정적인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상호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울릉(경북)=김진근 기자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 이벤트 운영

울산 울주군은 지역 대표 문화유산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관광 활성화 홍보를 목표로 기획됐다.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총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울주군이 선정한 반구천의 암각화 관련 명소 9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는 ‘스탬프투어’가 마련된다. 울산 외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택시 반구천 투어’도 운영된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 선정 15개 시도,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논의

3건 선정... 총 846억 사업비 확보
해양 탄소중립·선박 연구개발 거점



목포 남항 연구인프라 조감도. /전남도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3건이 연이어 선정돼, 총 84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개발(265억원) ▲친환경 연료화재폭발 안정성 평가 및 대응설비 개발(302억원) ▲상반회전 추진시스템 기반 중대형 선박 전기추진시스템 개발(279억원)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2020년부터 역점 추진한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남이 해양탄소중립과 미래형선박 핵심기술을 선도할 연구개발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목포 남

항 일원에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전기추진 차도선,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과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시험평가 기술개발 등 친환경선박 선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도 목포 남항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연구개발 중심지로서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제266차 시도대표회의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회는 울산 문수컨벤션에서 지난 15일 제26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시구군회의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 회장단을 비롯해 울산지역 기초의회 의장, 울주군의회 의원, 지방의정보사상 수상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보 및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정책

지원관 기능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각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안 3건도 채택됐다. 강원대표회장이 제안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 복상 촉구 건의안’과 충북대표회장이 제안한 ‘선거지원 인력 처우개선 건의안’,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등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등이다. 이들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기호, 김대영, 이수영, 손옥선, 박기홍 의원에게 대한민국지방의정보사상이 수여됐다. 최길영 울산시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회의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소상공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3무 희망잇기’ 금융 지원 프로그램
부산시는 17일부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시행된 ‘3무 희망잇기 신용카드’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보증료 면제, 한도 심사 생략, 방문 신청 불필요라는 3가지 무료 혜택이 핵심이다. 새로운 희망잇기 통장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해 운영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비대면 신청 절차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체크카드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 6개월 이상, 나이스(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용평점 595점 이상은 구 신용등급 1~7등급에 해당하며 전체인구의 95.5%가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크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달성군, 대구 첫 ‘무료 워터페스티벌’ 열어

‘달성 청년 워터플레이스’
달성군과 (재)달성문화재단달성문화도시센터는 오는 26일 강정보디아크 광장에서 대구 최초의 무료 워터페스티벌 ‘달성 청년 워터플레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워터밤’ 형식을 차용해 시원한 물놀이와 청년 감성을 결합한 여름 야외 페스티벌로,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축제’라는 취지 아래 달성군 청년들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반에 참여했다. 행사무대는 ▲물총페스타 ‘달성청년페스타!(BLUE)’ ▲청년장기자랑 ‘너를 보여줘!(RED)’ ▲메인 공연 ‘꿈에그린콘서트(GREEN)’ 등 세 가지 콘셉트로 구성된다. 메인 공연에는 인

기 아티스트 프로미스나인, 그레이, 래원을 비롯해, 달성군 출신이자 2025 한국 레드볼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자인 팝핀매트가 무대에 오른다. 축제는 오후 5시 ‘청년구출대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오후 10시 워터쇼와 레이저쇼가 어우러진 피날레 무대로 여름밤의 열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와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청년이 운영하는 ‘청년플리마켓’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푸드트럭’ ▲무더위를 식힐 ‘서핑체험’ ▲추억을 남길 ‘캐릭캐처’ 등 무료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40m×30m 규모의 대형 그늘 쉼터와 쿨링존도 조성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달성(대구)=김준환 기자 kih9@

전남도-aT 베트남서 130만弗 수출협약

전남도 동남아시아사무소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5K(케이)-Food(푸드) 지역 특화상품 수출 설명회에 참여, 13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호치민지사가 주최했다. 전남도를 비롯해 호치민에 대표사무소를 둔 전국 9개 시도 대표사무소가 참여했다.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30여 개사와 베트남 바이어 50여명이 참석, 1대 1 수출상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남=양수영 기자